



## 오륙도 칼럼

윤현수

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문

매년 유월이 되면 어김없이 자연사랑 증표인 수많은 반딧불이가 남구 이기대공원에 은하수를 대신하여 찾아 온다. 그 자리엔 언제나 반딧불이 파수꾼인 김규영 선생이 함께했다. 구수한 충청도 말투의 선생은 20여 년 전 남구 용호동에 터를 잡은 예문여자고등학교의 개교 구성원으로 부임해 줄곧 교감선생으로 재직하면서 정년을 맞았다. 교단에 있을 때 자연사랑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내 텃밭을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예쁜 꽃을 심고, 토끼도 기르며 학생들이 자연사랑을 체험토록 배려했다. 선생은 자연과 환경사랑 교육 등의 공로로 대통령 근정포장과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시와 소설을 즐겨 쓴 문학가이자 퇴직 후엔 화가로도 입문해

각종 꽃과 반딧불이 등 수많은 작품을 창작해 작품전을 열기도 한 다재다능한 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젠다21을 결정하고 UN의 권고사업으로 세계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환경문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 남구에서도 2002년 2월 14일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현 아름다운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었다. 필자는 2대 회장으로 추대 받아 12년간 봉직했고, 예문여고 1회 졸업생인 필자의 큰 여식의 스승으로 인연이 시작된 김규영 선생을 자문위원 겸 부회장으로 모셔 함께 봉사를 했다.

이때 선생은 도심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장자산(이기대공원)을 수습선 훈자 탐방하면

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급 청정지역에 서만 사는 대표적 환경 지표종인 반딧불이들이 이기대 장자산에 대거 서식하고 있으며 5~7월에는 파파리반딧불이가, 8~9월에는 늦반딧불이 자생하고 있음을 협의회에 처음 알렸다. 선생의 이런 노력 덕분에 협의회의 다양한 환경사업 중에 중점 과제로 ‘이기대 반딧불이 보존 축제’를 17년째 매년 개최할 수 있었다. 축제는 남구 외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탐방객들이 반딧불이의 옛 추억을 찾으러 이기대를 방문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에서 태어난 필자는 어린 시절 들뜬반에서 반딧불이와 뛰어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아련하다. 도심에서 사라졌을 거라 여겼던 그 반딧불이들을 필자가 살고 있는 남구에서 다시 만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김규영 선생 덕분에 매년 6월 이기대공원에는 반딧불이 수백, 수천마리가 초여름

밤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를 뷰파인더에 담으려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대거 몰려오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자다가도 반딧불이 이야기만 나오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던 선생은 안타깝게 2021년 11월 11일 향년 71세로 소천했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선생은 오랜 병환 중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고 내색도 하지 않았다. 늘 보던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강직한 모습을 보였다. 선생이 안 계신 지난해 반딧불이 축제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선생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지인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더는 선생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밤하늘의 반딧불이가 된 선생의 뜻을 잊지 않으며 남구의 환경보존을 위해 반딧불이 보존에 적은 힘이지만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텃밭을 다듬고 있는 김규영 선생.

## ■ 남구 문인들의 글밭

### 앵두나무 심은 뜻은

최 철 훈

손바닥만 한 텃밭에  
우물도 없는데 앵두나무를 심었다네  
꽃샘추위에 등이 시린 날밤  
달빛에 물든 꽃잎  
앓던 그 모습 바라보며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네

추위에 악한 내자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깊이 숨겨 놓고  
따뜻한 봄날 입술에 연지 바른  
내자 입술 닮은 앵두를 따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심었다오

나이 들면 눈도 침침, 귀도 먹먹  
은발이 더 정겨운 나이  
봄바람이 꽃구경 가져고 성화를 부려도  
자고 깨면 마주치는  
앵두꽃 닮은 내자 눈빛이 더 좋다네



동의대학교 대학원 졸업/1991년 월간 문학등단(64회)/한국 해양문학상(제3회 시 부문)/오륙도 문학상(제5회)/부산문학상 대상(22회)/시집-부산 이리랑 외 다수/계간 종합문예지 '문장 21' 발행인

## 5월 15~19일 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

### 경성대 제1미술관

남구 지역의 예술가들로 이뤄진 남구문화예술회가 5월 15~19일 '제 32회 부산남구예술회 작품전'을 개최한다. 원로작가 서상환 외 100여 명의 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각 전시 분과가 장소와 시간을 다르게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예술회 전시 분과가 모두 모여 합동 전시회를 개최한다. 미술회, 사진회, 서예회, 꽃예술회, 수석회가 참



▲오정선 작가의 이끼  
◀서상환 작가의 얼굴



여하는 이번 작품전은 경성대학교 제1 미술관에

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부산남구문화회 ☎624-1333

### 산따라 물따라

## 5월 산행을 떠나요



산악회	산행일시	산행장소	연락처
우일산악회	5월 7일(일)	의령 한우산	010-3557-2847
대산산악회	5월 14일(일)	합천 황매산	010-9979-0702
용신산악회	5월 14일(일)	대구 비슬산	010-6763-6748
원뿌리산악회	5월 21일(일)	순창 무치산	010-4564-7769
백운산악회	5월 21일(일)	안동댐 둘레길	010-3832-5971
산이좋아산악회	5월 28일(일)	거창 우두산	010-9329-3560
우암산악회	5월 28일(일)	광양 배알도	010-6578-0488

※ 산악회 회원이 아니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 아이들과 함께 한 행복한 남구 탐방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문화체험을 간다.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유익한 박물관이나 갈매길, 역사관 위주로 행선지를 선정해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30년 넘게 남구에 살면서 지역에 자부심이 많아 남구 위주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장소가 세곳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유엔기념공원이다. 한국 전쟁 때 많은 나라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왔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잠들어 계신 묘지임을 알려주니 아이들은 제법 의젓하게 경건한 자세로 걸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다. 아이들은 웅장함이 깃든 역사관 건물을 보자 놀라워했다. ‘일제강제동원’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영상과 전시물로 재연된 곳들이 역사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한 아이가 역사관을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힘든 역경을 이겨낸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직 일제

강제동원역사관을 가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마지막 장소는 부산의 자랑, 오륙도 스카이워크다. 바다를 배경으로 아이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스카이워크로 한차례 향했다. 한 아이가 “선생님, 바다를 못 보겠어요”라고 말해 손을 꼬옥 잡고 함께 한발 두발 내딛으며 “오륙도에서의 인생샷”을 찍자 아이가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박해진  
(남부산지역아동센터 근무)

## 2023년 제2회 찾아가는 배달강좌 러닝콜 수강생 모집

- 신청자격 : 남구 주민 또는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구성원 8인 이상 학습모임
  - 직장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팀 우선 선정!
- 신청기간 : 2023. 5. 8.(월)~5. 12.(금) (개강 : 6월)
- 신청방법 : 남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www.bsnanggu.go.kr/edu) <러닝콜> 온라인 신청 ※ 운영매뉴얼 및 우선선정기준표 필독
- 신청가능 강좌 : 배달이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 강좌수 : 15개 강좌 내외(연도별 1인 최대 2개 강좌 신청 가능)
- 학습장소 : 학습자가 선택한 남구 관내 학습공간
- 학습시간 : 1강좌 당 20시간 이내
- 수강료 :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는 학습자 부담)
- 문의 : 남구 평생교육과(☎607-4511)

## 찾아가는 배달강좌 러닝콜 “배달강사”에도 등록하세요!

- 강사자격 : 해당 강좌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또는 경력자
- 등록 - 남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www.bsnanggu.go.kr/edu) “강사”로 회원 가입
- 방법 - 강사신청(이력,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록) ▶ 관리자 승인 ▶ “러닝콜” 강사 추천강좌 등록

## 10월까지 부경대 대학로 창작국악 버스킹 공연

청년예술가들의 창작국악 버스킹 공연이 부경대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남구는 올해 부산시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운드 팩토리 판의 오늘도 공연 한 판, 얼썩!’ 공연



을 4월부터 10월까지 남구청 테마공원 및 부경대 대학로 일대에서 총 6회 개최한다.

공연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국악에

공연 주제	일 시	장 소
대중가요를 국악기로 재해석한 관객참여형 공연	4. 27.(목) 12 : 20 ~ 13 : 00	남구청 테마공원
판소리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모던판소리 공연	4. 29.(토) 16 : 00 ~ 17 : 00	부경대 가로수길
국악과 어쿠스틱을 결합한 한쿠스틱 공연	5. 27.(토) 16 : 00 ~ 17 : 00	
전통음악을 노래, 춤, 연주로 표현하는 공연	6. 24.(토) 16 : 00 ~ 17 : 00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알리는 월드국악 공연	9. 23.(토) 16 : 00 ~ 17 : 00	
동서양 악기가 조화를 이룬 한국적인 크로스오버 공연	10. 28.(토) 16 : 00 ~ 17 : 00	

술을 선보이기 위해 각 화차별로 △대중가요를 국악기로 재해석하고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연 △전통판소리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모던판소리 공연 △국악과 어쿠스틱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연주하는 힐링 공연 △전통음악요소를 다양한 음악과 조합하여 노래, 춤, 연주로 표현하는 공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알릴 수 있는 월드국악 공연 △동·서양 악기가 조화를 이룬 한국적인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607-3664

## 부산의 역관, 박기종의 초상사진



유현의  
부산 유물이야기



박기종의 초상사진(부산시 유형문화재 125호, 1876년 추정)

조선시대 역관은 통역전문가이자 실무 외교관으로 통사(通事)라고 불렸다. 그들은 장기간 습득한 외국어 지식을 바탕으로 외교 사절단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를 방문한 외국 사신의 수행 업무를 전담하였다. 결국 역관은 조선을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의 역관뿐 아니라 부산 등 특정 지방의 하급 역관인 소통사도 포함된다.

사진 속의 청년 박기종은 부산의 초량 출신으로 동래부 상인과 일본과의 상거래를 알선하면서 일본어를 익혔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역관(통사)을 보조하는 동래부 소속의 하급 통역관인 소통사로 일하다가,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에 1차·2차 수신사를 파견할 당시 통사로 참여하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박기종은 항만을 총괄하는 부산항경찰관으로, 다대포와 영도의 수군 첨절제사로 활동하다가, 마침내 중앙 외교무대에 진출하여 오늘날 외교부 차관에 해당하는 판리공사를 역임한 입지적인 인물이다.

박기종의 초상사진(시 유형문화재 125호)은 그의 나이 37세, 1차 수신사(1876년)로 일본 동경을 방문했을 때 아사쿠사에 있는 대유원(待乳園)이라는 사진관을 직접 찾아가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수신사 김기수의 사진(1876년)이 개항 초기 공식 외교관 사진임을 감안한다면 박기종의 사진도 이와 맞먹는 역사적 중요성을 띤 소중한 자료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즈음에는 기존 화원들이 그린 초상화를 대체하여 서양의 마법 기계인 사진기가 찍어낸 초상사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

기 때문이다.

박기종은 초상사진 촬영을 위해 최대한 의관을 갖추었다. 갓을 단아하게 쓰고 대나무와 구슬을 꿰어 만든 갓끈을 왼쪽 어깨 쪽으로 살짝 흘러놓았으며, 갓끈 장식으로는 육각형 대모(거북껍질)를 달고 있다. 도포자락 위에는 당시 무관이나 하급 관리가 주로 입었던 푸른색 패지를 걸치고 있다. 정면을 뚜렷이 응시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자신감이 엿보인다. 실제 박기종은 대한제국의 자주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산에서 배, 철도, 교육 사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 부산박물관에서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23년 특별기획전 <조선의 외교관, 역관>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조선의 역관이 사역원(司譯院)을 통하여 양성되는 과정, 국가의 무역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훗날 큰 감부로 성장하는 모습, 역관들이 경험한 개우친 새로운 외국 정보와 문화를 통해 조선의 문학과 예술이 발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시 관람을 통해 드넓은 신세계를 향해 도전하였던 조선 역관의 뜨거운 열정과 방대한 외교 성과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박물관 전시운영팀장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유료광고 접수 4071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